



오라단지 자본검증 법정가나

자본검증위 “JCC 자본조달 능력 미흡”
작년말 도 지정계약에 3373억 입금 요구

JCC 전 회장 9일 원 지사 직권남용 고발
“자본검증 법령상 근거 없어… 사업 지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을 실시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 사업자측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박영조 전 주식회사 제이씨씨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9일 오전 제주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원 지사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후속조치로 제이씨씨에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으로 인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등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

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말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제이씨씨는 2017년 기준 자산 1320억원 (토지 1135억원 포함) 및 부채 550억원의 재무상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회사인 중국 화웅그룹으로부터 자금 확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웅그룹의 해외 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며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이씨씨의 자본 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에는 제이씨씨에 총사업비 중 예정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뺀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약에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이씨씨는 사업허가를 전제로 1억달러를 시중은행에 예치하겠다고 하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제이씨씨가 총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관광호텔 2300실과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골프장 등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경관 훼손 우려와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제주도의회는 2017년 6월 자본 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

이후 제주도는 금융과 법률, 회계 등 각계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제이씨씨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했지만 이같은 자본검증이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어서 논란이 있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발길 이어진 김장재료 직거래장터 9일 제주시 농업제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김장철 맞이 직거래장터가 열린 가운데 많은 도민들이 방문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추 등 김장재료들을 구입하고 있다.

수습된 실종선원 베트남인 추정

해경 “정확한 신원확인 위해 DNA 분석”

속보=제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 선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 2구 중 1구는 대성호의 베트남 선원으로 추정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수습한 시신 1구에서 지문을 채취한 결과 이 시신의 신원이 베트남 선원으로 특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성호는 지난날 8일 오전 승선원

12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해 그달 19일 오전 4시 전후로 발생한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탄 후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 승선원 12명 중 6명은 베트남 국적이고 나머지 6명은 한국 국적이다.

해경은 수습한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분석을 진

행할 예정이다. 또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도 실시한다.

해경은 시신의 사인과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8일 무인잠수정(ROV)을 동원해 수중 수색을 실시하던 중 이날 오후 3시40분쯤 대성호 추정 선체가 침몰한 해역으로부터 약 44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한 데 이어 오후 3시52분쯤에는 선체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추가로 시신 1구를 더 발견했다.

이상민기자

■ 국민권익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도, 종합청렴도 최저등급 불명예

제주도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함께 종합청렴도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또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하

위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내부청렴도 역시 두번째로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전년대비 2등급씩 추락한 것이고, 1등급을 자랑하던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청렴도 추락 요인을 2가지 사례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2016년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에 확정, 감점이 이뤄

졌고, 이어 지난 10월 24일 경찰이 상하수도 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정책고객 평가 3등급을 받았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사 배치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사가 배치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4일 채용한 간호직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39명(간호 23명·사회복지 16명)에 대한

정식 발령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주도가 올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채용된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소 소속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된다.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은 중증 장애인과 정신질환, 고위험 1인 가구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배치를 통해 읍·면·동을 거점으로 한 노인 및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양돈폐수 유출 농가 ‘사용중지 3개월’

폐수 25t 가량 외부 유출
서귀포시 행정처분 내려

서귀포시는 양돈폐수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대정읍 소재 양돈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소재 한 양돈농가는 지난 9월 저장조에 담긴 축산폐수를 우수관을 이용해 다른 저장조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폐수 약 25t을 연못 등으로 유출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서귀포시는 현장을 방문해 폐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수관 중간 지점을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는 한편 연

못에 고인 물(축산폐수 포함)46t 전량을 뺐아내고 추가 세척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에 사용중지명령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양돈농가는 내년 3월 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폐지를 모두 처분해야 하며,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양돈장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금지 기간후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7년 12월 29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가축분뇨 유출위반행위에 대해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제주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97년 7월 처음 개소한 수어통역센터는 현재 수어통역사 16명이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야간전담 2명, 관광전담 1명이 포함돼 있다.

야간전담 통역사의 경우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배치됐고,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어통역센터 방문, 영상전화(070-7947-0065), 홈페이지(http://www.jeju deaf.com)를 통해 의뢰하면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파견된다.

송은범기자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와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광양 한국병원→ **오라파출소 터미널** → 신제주→
소리샘 보청기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전국 꽃배달 서비스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